

국내 엠폭스 “대규모 유행 가능성 낮아”

질병청, 엠폭스 확진자 역학조사 경과 발표 엠폭스 백신 ‘포위접종’ 도입 여부 논의키로

국내 엠폭스 확진자 수가 3명 늘어 총 34명이 됐다. 확진자 대다수가 익명의 사람과 밀접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으면서도 선제적으로 엠폭스 백신 접종을 하는 ‘포위접종’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6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엠폭스 확진자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 수는 전날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3명이 추가돼 총 34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내국인이다.

첫 국내 감염 추정 환자가 발생한 7일부터 전날까지 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 거주지는 서울 13명, 경기 7명, 경남 3명, 경북과 대구 각각 2명, 전남과 충북 각각 1명이었다. 내국인은 27명, 외국인은 2명이다.

29명의 확진환자 중 28명은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없고 1명은 해외여행력은 있으나 증상 발현과 해외여행력이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국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험노출력을 살펴보면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력이 확인된 사람이 89.7%였다.

국내 확진자의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을 포함한 발진이다. 증상 초기 발열, 두통, 근육통, 오한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전구기(질한 출현 전 불특정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 증상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엠폭스 관련 신고 및 문의는 이달 1주차 4건에서 3주차 102건, 검사 건수는 같은 기간 1건에서 4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24일 기준 검사 시약 4400명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200건 이상의 검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조사된 확진자의 접촉자는 노출위험도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특이증상을 보고한 사례는 없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김진용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엠폭스는 호흡기 감염병과는 다르게 밀접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되고,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인구에서는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이 대규모로 유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보고된 엠폭스 확진자 중 성적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3만여명 중 84.1%가 동성애자였다. 또 전과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1만8000건 중 82.1%는 성관계로 전파됐다.

김 과장은 “엠폭스는 치명률이 0.13% 정도로 낮고 실제로 국내 엠폭스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대증치료로 2~4주 후 완치가 됐다”라며 “당분간 엠폭스는 밀접한 피부접촉이 많이 이뤄지는 고위험군에서 제한적인 전파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백신이나 치료제 등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국내 의료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고위험 시설 내 접촉자 등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노출 전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해 방역상황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엠폭스 백신인 3세대 두창백신은 지난해 8월 5000명분(1만 도즈)을 도입했다. 전날 기준 의료진, 역학조사관, 실험실 요원 등 140명이 노출 전 접종을 받았고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1명이 노출 후 접종을 했다.

임 단장은 “방역당국은 의심환자의 조기 발견과 신속 진단을 통한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강진소방서, 119구조대원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실시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관내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익수사고 및 차량인양 인명구조에 대비한 119구조대원들의 지속적 수중 적응훈련을 위해 “특별수난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담양소방, 한국 119청소년단 발대식 열어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남도립대학교 등 7곳에서 한국 119청소년단 발대식 행사를 가진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주지방보훈청, 주니어보드 운영으로 직원간 소통 강화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은 지난 3월부터 ‘주니어보드’를 운영하여 젊은 직원들이 사업 추진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김재환 기자**



진도경찰, 진도군노인복지관 업무협약 체결

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는 지난 25일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도군노인복지관과 진도 경찰서장실에서 체결하였다. **진도=조상용 기자**



순천경찰, 국제정원박람회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전개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국제정원박람회장 및 오천동 상가밀집지역 주변 일대에서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완도해경, 설명회 소통해 지역 언론 정책설명회 개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25일 지역 언론과 유대관계를 다지고 주요 추진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언론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이천도자기축제 찾은 관람객들 제37회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린 26일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예스파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도자기를 살펴보고 있다. 다음달 7일까지 12일간 열리는 이천도자기축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화물차에 실린 철판 코일 결박 사슬 풀려... 자칫 대형사고 위험

광주 광산구 한 나들목 지하차도를 달리던 40t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 벽면을 들이받아 일대 교통이 3시간 넘게 마비됐다.



화물차에는 13t짜리 철판 코일이 두 개 실려있었는데 급정거에 의한 충격으로 결박 사슬이 풀려 사고로 이어졌다.

자칫 도로 위에서 결박이 풀렸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르면서 운수업 종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운수동 운수나들목(신운지구 방면) 편도 2차선 지하차도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40t 화물차가 왼쪽으로 기울어 벽면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으나 견인 등을 위해 차량 진입이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서구 무진대로까지 이어진 교통정체는 사고 발생 3시간 여 만인 오전 9시 10분께 화물차가 견인되면서 풀렸다.

A씨는 전남 순천에서 13t 무게의 철판 코일 2개를 싣고 광산구 평동산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 “급정거하는 앞차를 따라 화물차를 멈춰 세우던 중 철판 코일을 묶고 있던 결박 사슬이 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짐칸에 실린 철판 코일을 묶고 있던 결박 사슬이 급정거 충격에 의해 풀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행 중이던 화물차에서 철판 코일이 이탈하는 사고는 도로 위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21km 지점에서 60대 남성 B씨가 몰던 25t 화물차에서 13t 무게의 철판 코일이 오른쪽 2차로로 떨어지면서 주행중이던 SUV 차량을 덮

쳤다.

이 사고로 승합차 보조석에 타고 있던 B(8)양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운전석에 타고 있던 B양의 모친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6월 전남 담양군 고서면 광주대구고속도로 고서분기점에서도 50대 남성 C씨의 25t 화물차에서 금속 코일이 떨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고 당시 차량 4대가 뒤따르고 있었기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적재하중 이탈 방지 기준’에는 ‘코일의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 구조물 또는 쇠기 등을 사용해 고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기준에 따라 7t 이상 철제 코일은 한 개당 받침목 두 쌍과 강철 사슬, 레버블록(고리형 중량물 고정 장치)을 이용해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정해야 한다. 보다 확실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코일 운송 전용 트레일러가 도입됐지만 용도가 제한적이라 이를 운용하는 운수업 종사자들은 드물다.

대부분 운수업 종사자들은 다양한 화주가 주문하는 물건을 나르기 위해 범용성이 있는 평평한 짐칸이 달린 화물차를 운용하고 있다. 코일 운송 전용 트레일러를 운용할 경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 선불리 구입해 쓸 수 없다는 업계 설명이다. **김재환 기자**

설 연휴 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15년

올해 설 연휴 첫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26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 “한각 증상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 질환 치료를 받다 약물 처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유족인 동생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비 기자**